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3월 9일)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코로나19 장기화… 사찰 재정 '빨간불'

법회 중단 · 참배객 감소로 재정난 심각 수준

성보문화재 관리 어려워
교역직 스님 보시금 삭감
불교대학도 입학생 모집난

문체부 종무실장 예방서
원행 스님 "정부 지원을"
분담금 조정 필요성 높아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사찰들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선 사찰들은 주지,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라 조계종은 세 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리고 법회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취소 · 연기 등을 일선 사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의 사시예불과 법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도 접수 역시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회 중단으로 인한 기도비 감소와 참배객들이 오지 않는 상황으로 사찰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고정 지출 비용이 커 재정난이 심각하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 조계사 측은 "고정적인 월 지출로 인한 부담이 있다. 현재 1~3단계로 절감책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3월부터 소모품 절약과, 종무원 업무추진비를 전면 삭감하고 아르바이트 등 외부 인력 활용을 중단했다. 조계사는 장기화 시 종무원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에 위치한 서울 봉은사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행사 중단과 기도객 감소 등으로 1분기 사찰 수입은 예년에 비해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주지스님께서 먼저 3개월간 급여를 반납하셨고 사중 스님들도 직책수당을 반납하고 기본급을 삭감하셨다. 또 종무원들과 합창단, 계층별 조직도 각종 보시금을 반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주요 교구본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조계총림 송광사 재무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로 1개월간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55% 감소했다. 게다가 송광사에서 매년 봄 진행해온 3월 불사가 취소된 것은 최근 40여 년 역사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관계자는 "산문폐쇄는 하지 않았지만 법회나 각종 순례가 이뤄지지 않아 관람료는 2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이보다도 일반사회의 피해가 더 커 걱정"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향후 헌혈과 코로나19 기금 등을 만들어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초하루법회 기준으로 평소 10% 수준으로 기도비가 접수됐고, 입장료 수입도 현격히 줄었다. 대외 지출과 공양비를 최대한 아끼고, 교역직 스님들의 보시금을 삭감했다.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 스님은 "힘든 상황이지만 최대한 아껴쓰는 방향으로 사중 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면서 "그래도 통도사 소유 상가들에게는 임대료 50%를 감면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역시 평소 10~20% 정도만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 교무국장 범종 스님은 "문화재관람료를 원래는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는데 이마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사중 대중이 더 아끼고 절약하며 위기를 넘기려 한다"고 전했다.

'불도(佛都)'라고 불리는 부산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부산 사하구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중요 법회를 취소해 신도들은 모이지 않는다. 평일에는 간간히 기도하기 위해 법당을 찾는 참배객들이 있지만 하루 5명도 안된다"면서 "세속에는 더 힘든 사람도 많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더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불교대학들도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모든 것이 멈췄다. 개강도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강생들의 졸업식도 열지 못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서면 중심에 있어서 아예 문을 닫았다"면서 "문을 닫고 혼자서 예불하며 방역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찰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종단의 재정 상황도 빨간불이 커졌다. 이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월보시금을 삭감해 종단운영비로 회향했다. 행사와 사업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 전반의 재정난이 심각 수준에 이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원행 스님은 3월 25일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은 줄어들고, 문화재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출되면서 많은 사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사찰은 더 힘든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사찰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찰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분담금 감면 등 종단적 대책도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총무국장 지상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분담금 감면을 추진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과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사찰들의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지나서 상황을 보고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 취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 제13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KCRP는 2월 25일 공동회장단 회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를 연기하고, 각 종단 행사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기된 총회를 다시 연기하기 어려워 대다수 대의원 위임을 받아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회를 개최했다. 취임식을 겸한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김희중 전임 대표회장과 KCRP중앙위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13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원행 스님은 "이웃종교와 함께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종교간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정과 화합,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들 '자비 헌혈'로 사회적 기여 나서다

조계사,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운동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조계사 스님과 신도 대중이 '자비의 헌혈'을 통한 사회 기여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는 3월 24일 조계사 경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소멸 발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 헌혈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해 나눔을 실천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마련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하루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각자가 자기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조계사는 3월 24일 경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소멸 발원, 자비의 헌혈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동식 헌혈버스 안에서 조계사 행정국장 홍재 스님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고시위원회 1급 승가고시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결정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 · 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납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신고를 필하고 매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 · 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 · 계단위원 · 법규위원장 · 호계위원 · 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조계종 1급 승가고시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급 승가고시는 여타 고시와는 달리 필답 고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갈마위원 5명이 그간의 수행이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과 앞으로 계획을 묻는 면접 고사로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